

石油協會 창립 3주년의 평가와 課題

大韓石油協會는 회원 상호간의 이해와 우호증진을 통해 石油産業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① 石油業界의 의견을 집약, 조정, 건의하고, ② 국내의 石油産業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 보급하며, ③ 石油産業에 대한 홍보활동 등을 그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다. 창립 3년을 맞아 石油協會에 대한 솔직하고 기탄없는 의견을 알아본다. (編輯者註)

1. 창립 3주년에 즈음한 소감은?
2.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은?
3.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4.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5. 협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6. 기타 협회에 바라고 싶은 말은?

석유업계의 대변기관에서 벗어나 석유문제 전문기관으로 능력배양을

張 鎬 鍊 (油公·業務開發部)

1. 1980年代初 제2차 오일쇼크로 국내외적으로 石油安定需給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창립된 이후, 국민경제에 기초에너지를 공급하는 精油産業의 협의체로서, 對政府 업무의 창구역할, 對國民 홍보활동 등의 설립목적을 원만하게 수행하면서 이제 창립 3주년을 맞이 한다니 정유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축하를 보낸다.

資源貧國의 국가적 현실 속에서 石油메이저의 化身으로서의 정유업계에 대한 좋지 않은 國民認識 등이 石油業界의 진로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였었기에 石油協會의 오늘에

이른 성장이 한결 돋보이며, 가치를 발한다 하겠다.

2. 석유파동을 겪으며 高原油價 下의 시설과잉에 따른 적자경영을 탈피하려는 精油業界의 치열한 시장 경쟁의 와중에서, 경쟁會員社 상호간의 이해조정이라는 일련의 어려운 과정을 통해 시장정상화를 도모하며 協會의 存在意義를 부각시켰다.

기간산업으로서의 石油業界에 대한 정부의 많은 규제에 슬기롭게 대처하며, 경쟁기업간의 자료교환의 매체가 되어 주었고, 체계적인 국내 석유관련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하여 국내 정유산업의 현주소를 파악

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해외석유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의 창구로서의 역할에 미흡하나마 충실을 기하여 왔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아울러 자원난의 극복과정 속에서 石油業界의 공동대처방안 모색의 求心點이 되고 있음은 크나 큰 무형의 資産이라 하겠다.

3. 協會 설립의 역사가 日淺한 관계로 아직 미비한 점이 적지 않은은 사실이다.

우선, 국내의 石油關聯資料에 대한 專門家的인 分析力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現象의 기술에 그칠 뿐, 現在 및 미래에 대한 분석·전망이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부정확한 자료의 產出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확하고 살아있는 자료가 되기 위해선 原始資料에 대한 專門家的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對輿論 홍보활동의 미흡함도 지적되어야 하겠다. 책자 발간이

라는 평면적인 홍보활동으로 지금까지의 급격한 유가인상에 따른 정유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의식을 불식시킬 수는 없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정유산업의 현황과 실상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이해를 도와야 할 것이다.

4. 물밑듯이 쏟아져 들어 오는 각종 石油關聯資料의 효율적인 수집·분석·평가를 할 수 있는 일련의 情報處理過程의 定立이 필요하다.

자료는 단순히 原始資料의 나열에 그쳐서는 유용한 情報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의 石油關聯機關으로서 해외자료의 신속한 수집에서 출발하여 보다 전문적인 視角에서의 分析을 통해 精油産業의 나아가갈 길을 제시하고 나아가 정부의 에너지 政策樹立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배양에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외국의 有關機關과의 직접적인 교류의 폭을 넓혀 해외 정보를 외국저널에 의존하는 단계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5. 協會는 石油業界의 대변기관으로서의 초기 역할에서 벗어나 石油問題 專門機關으로서의 능력배양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石油問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分析·評價能力的 배양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 政策자문에 응할 수 있는 역할제고와 함께 石油業界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겠다.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油價自律化의 추진에 따라 協會機能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이를 뒷받침할 專門人力의 양성이 긴요하리라 하겠다.

6. 石油協會의 기능이 강화된다. 할지라도 協會 본연의 설립목적이 퇴색되어선 안되겠다. 石油産業의

건전한 발전 없이 協會의 自生力이 힘을 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료적이 아닌 합리적인 意思決定方式을

통해 석유산업내의 상충되는 이해관계의 무리없는 조정이 계속되어야 한다.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조정 및 강력한 대정부활동을

— 김 여 영 (호남정유 인력개발부)—

1. 80년대의 초반, 우리 경제가 극도로 침체에 직면한 어려운 시기에 에너지産業의 근간인 精油業界의 의견수렴 기구로서 모습을 보인 石油協會의 그간 활동에 대하여 축하를 드리며, 아직은 그 태동기로서 비록 뚜렷한 성과가 깊이인식되지 못하였을 지라도 비약을 꿈꾸는 희망찬 활동지역을 계속 확보하여 나가는 명실상부한 協會가 될 것을 기대한다.

2. 우선 훌륭한 資料의 集大成化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침체경기 국면에 처한 精油社들이 정상적인 업무추진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업무도 내지 못할 방대한 資料를 한데 펴낸 공적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리고 精油会社의 구심점으로서 관련부서간 당사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도 좋은 일종의 하나이고, 또한 精油社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정부에 전달함은 물론 對國民 弘報에 보인 공로는 크다고 할 수 있다.

3. 아직 協會의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충분히 精油社 직원들에게 인식되지 못한 관계로 업무협조면에서 원활하지 못하다. 그런 관계로 石油協會가 명실상부한 協會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형식적 존재로 될 위험이 있다. 또한 대정부 관계에서 좀더 설득력 있는 힘을 가

지고 정부, 국민, 정유사간의 진정한 완충역할에 힘쓰는 것이 무엇보다

4. 精油業界에서 문제된 일들을 사후에 연구하는 자세가 아닌 진정한 아쉽다.

한 선도적 위치에서 일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 우선 다가올 代替에너지 정책에 맞추어 精油社가 취해야 할 座標를 깊이 연구, 검토, 제시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외국 정유사와의 교류를 추진하여 기술교환은 물론 情報交換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油價自律化 및 유통구조의 개선등 현실문제에 대하여 精油社間의 의견조정 및 대정부기관에 강력 대응하는 파위를 가져야겠다.

5. 인원을 늘려서라도, 各 精油社 담당자가 선정되어 깊은 人和關係를 이루어 精油社의 진정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깊이 파악하여 그것에 대처하는 업무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대정부기관에서의 정책결정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확한 資料수집 및 分析업무를 수행하여 權威있는 기관으로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민에게는 精油会社를 좀 더 높게 인식시킬 수 있는 제반방안을 강구하여 국민에게 精油会社에 대한 건의를 수집하는 정도까지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6.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무엇보다도 석유협회는 일의 기동성과 정확성을 기하여 선도적인 협회가 되기

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

1%에도 미달하는 이익을 과다하고 부당한 이익의 향유로 보아야 하는가.

이는 어쩌면 과거 메이저가 진출할 시의 불평등계약과 그후의 족적이 남긴 殘像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잔상이라고 지나쳐 버리기에겐 그 흔적이 너무나 짙고 두텁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이미지를 바로 잡아 정유산업의 의의와 실상이 국민 모두에게 정확히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石油協會의 앞으로의 최대과제이며, 바로 여기에 그 設立意義의 요체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새로운 차원에서 폭넓게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새로운 차원에서 폭넓게 전개하도록

俞 石 在 <雙龍精油 業務部長>

大韓石油協會 창립 3주년을 맞아 회원사에 근무하는 한사람으로서 심심한 축하를 드린다.

그동안 石油協會는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고통속에서, 그리고 정유산업을 보는 것같은 시각속에서 정유산업의 발전과 회원사간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안팎으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회원사간의 規點의 차이를 조화시켜 공동의 이해로 수렴하는 대화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현저히 그 存在理由를 확립하였다 할 수 있다. 이 점은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 회원사간의 모든 문제가 協會에서 대화로 해결되는 전통을 굳혀 나아가길 바란다.

반면에 協會의 지난 3개년의 발전취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홍보활동에 있어 그 폭과 너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물론 현재의 인원과 예산으로는 協會報를 내는 것만도 벅찬 일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설명되기에는 현상이 너무도 심각하고 事實이 너무도 중대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石油는 국민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종에너지이며 석유에 관한 정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범국민적인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석유를 생

산하는 정유회사를 여론은 어떻게 비추고 있는가?

환율상승으로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정유사가 출연한 기금으로 다른 산업에 막대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면서도, 정유산업은 왜 국민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한가?

왜 아직도 여론은 외형 매출액의

연구개발업무에 충실하면서 정유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徐 容 日 <動力資源部 企副課>

1. 지난 80년 세계경제를 不況의 수렁으로 떨어뜨린 오일쇼크의 와중에서 국내 5개 精油社를 모체로 발족한 大韓石油協會가 이제 창립 3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지난 3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착실히 성장, 오늘의 면모와 체제를 갖추어 그 설립목적을 충분히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2. 무엇보다도 지난 3년간 會員社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친밀감을 조성하여 상호유대의식을 강화시킨 데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또한 많지 않은 인원과 예산으로

국내의 석유자원에 관한 정보수집, 교환, 분석등 조사연구업무와 홍보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석유 및 석유산업에 관한 지식의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고 본다.

3. 제5공화국 출범이래 사회 각계각층에 만연되어 있던 부패와 혼란이 점차로 불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의 뇌리에 남아있는 악덕기업의 선입견, 특히 精油業界는 독과점업체로서 물가인상을 부채질하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집단이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기 위한 對國民弘報活動이 미흡했다고 보며, 단순한 이익단체의 성격에서 벗어나 對國民홍보기능을 보장

했으면 한다.

4. 비록 現在の 油價市場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본다면 앞으로의 脫石油에너지정책에 대비해서 정확한 데이터수집, 정리, 분석과 정책 수립을 해 나가는 데이터 뱅크로서의 임무와, 공정한 제3자의 위치에서 精油社의 악화된 경영여건을 어떻게 호전시키며 또한 국민경제의 부담을 감소시킬 것인가하는 양면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진력해야 할것이다.

5. 이제 우리 경제는 개발단계에서 벗어나 성숙단계로 접어 들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官主導型經濟秩序에서 점차 民間主導型經濟로 유도되는 국내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처할 능력배양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만약에 정부위주의 석유정책실시 단계로부터 精油社와 관련단체를 통해 수행능력과 역할이 주어진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과 역량을 갖추어야만 할 것이다.

6. 協會는 業界에 의해서 結成된 業계를 위한 團體임에 틀림 없으며, 또한 業계를 떠나서는 存在할 수 없고, 業계의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만 그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그러나 精油産業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산업이며, 그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업종이므로 業계의 이익만을 전적으로 대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協會는 국민경제 전체적 입장과 業계의 이익이 상치될 때, 그 완충장치로서의 역할에 보다 충실해져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중간자의 위치에서 연구개발업무에 충실하면서 정유업계

의 의견을 수렴하여 尙國民적 신뢰를 높여 가는데 큰 역할을 하는 協會가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大韓

石油協會의 창립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미래의 석유산업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에 투자와 전문가 양성을

— 金 重 求 (韓國動力資源研究所·先任研究員)—

1. 創立 3주년을 맞는 大韓石油協會에 진심으로 축하를 보낸다. 그동안 石油協會는 ①石油産業과 관련된 국내의 市場情報의 수집, 분석 및 보급활동 ②精油社間의 異見調整및 石油産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견및 政策제시 ③弘報活動을 주임무로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全任職員이 일치단결하여 짧은 기간이나마 비약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2. 石油情報의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石油協會報」는 그때 그때의 時事性있는 토피를 時宜適切하게 담고 있어서 이를 읽는 독자들로부터 많은 好評을 받고 있다. 또한 「石油年報」는 石油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고있는 분들에게 좋은 자료의 안내자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The Petroleum Industry in Korea”는 우리 나라 석유산업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된다. 계속 보완을 부탁드린다.

금년 6월에 대한석유협회에서 나프타價格에 대해 정부에 제시한 건의서는 시기에 適切한 政策提示라고 보겠다. 앞으로도 많은 政策的提示를 요망한다.

3. 長期的으로 大韓石油協會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石油정

보의 수집, 분석, 보급 체계가 갖추어져야겠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좀더 신속한 정보의 수집, 보급개발을 위한 기구를 擴大해야겠다. 또 정부의 諮問에 응할 수 있는 專門人力을 확보하고 정부시책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分析팀의 養成이 시급하다.

4. 정부의 경제운영의 방향이 政府主導型에서 民間主導型으로 전환해 가고 있는 時点에서 油價調整등 민간단체에서 그 機能을 수행해야 할 때가 곧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石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는 신속히 입수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必要時 精確한 分析結果를 토대로 問題를 恰切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틀(frame)을 마련해 줘야겠다. 또 세계적인 專門機關도 발돋움 하기 위하여 美國 등 世界石油專門機關과 姉妹結縁을 맺고 恒時 情報交換에 힘써야 할 것이다.

5.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구하는 입장에서 말한다면, 미래의 石油産業發展을 이룩하기 위하여, 貴協會가 尙장서서 研究開發에 대한 투자와 專門家 양성에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말로 大韓石油協會의 발전을 加速化시키는 原動力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